

구텐베르크, 역사인가 신화인가

구텐베르크의 생애에 얽힌 신화와 수수께끼

최상안 | 경남대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구텐베르크 초상화.

지난 세기 말, 미국의 유명 잡지와 언론인들은 지난 1천년 동안 인류 문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구텐베르크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책들이 발간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결과에도 그의 생애와 업적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신빙성 있는 증거 대신 소수의 간접적인 자료들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연도, 교육 정도, 성격 따위는 물론 인쇄 업적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들은 상당 부분 짐작에 의한 것들이다.

전기작가의 상상력이 신화적 인물로 거듭나게 해 전해오는 자료들은 주로 재판에 관한 기록들인데, 우리에게 알려진 구텐베르크의 생애는 바로 그 기록들을 근거로 조각 맞추기하듯 엮어놓은 결과다. 어쨌든 자료에 따르면 구텐베르크는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재판정에 들락거리면서 인생의 상당부분을 소송에 시달리면서 지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30대 후반에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여자에 의해 종교 재판에 회부됐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증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된 재판은 대개 벌린 돈을 갚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금속활자의 발명에 초점을 둔 연구자들은 뛰어난 발명가로서 그의 천재성을 강조하고 자금 동원력을 지닌 사업가의 모습으로 영웅시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여기에 전기작가들의 상상력이 보태져 신화적인 인물로 재탄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고안한 획기적인 인쇄술의 과실을 사기꾼에게 속아 빼앗기고 말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떠난 불운한 발명가의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그에 관한 역사적 증거자료들은 전기작가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모자람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안드레아스 벤츠케가 펴낸 《인쇄술의 발명자 구텐베르크》(1993)를 들 수 있다. 벤츠케가 평가한 구텐베르크는 순진한 탓에 사기를 당한 “천재”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가차없이 행동하는 “교활한 장사꾼”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결

코 품행이 바른 인물도 아니었다. 걸핏하면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 혼인서약을 파기하는 등의 행위가 그 이유였다.

인물이나 업적이야 아니라 평가가 엇갈려 그의 업적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사뭇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지은이에 따르면 구텐베르크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우둔한 수공업자였다. 다시 말해서 전통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나름대로 낡은 시대를 이끌어 가려 했을 따름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진적 사상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구텐베르크는 의도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창조하기 위해 계몽 정신에 불을 당긴 미래지향적 인물이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고도의 지적인 인간이라는 이미지는 그가 죽고 난 수세기 후에 조각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을 따름이다”는 결론을 볼 때 언론인 벤츠케의 눈에 비친 구텐베르크는 어느 모로 보나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에 대해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애호가들은 즉각 방어자세를 취했다. 특히 《구텐베르크 연감》의 발행인 코피츠는 벤츠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내놓았고, 다시금 상대방의 재판론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들의 대립적인 논쟁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양쪽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독일 작가 필립 반덴베르크가 구텐베르크의 스승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역사소설을 내놓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에서도 구텐베르크는 성실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도덕가가 아니라 스승의 기술을 훔쳐낸 야비한 제자로 묘사돼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구텐베르크의 신화는 계속될 것 같다. ■

최상안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의국어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뒤셀도르프 대학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남대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하이네의 시대의식과 참여적 문학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그리스 로마 철학기행> <구텐베르크의 가면> 등이 있다.